

**Korean A: literature – Standard level – Paper 1**  
**Coréen A : littérature – Niveau moyen – Épreuve 1**  
**Coreano A: literatura – Nivel medio – Prueba 1**

Wednesday 4 May 2016 (afternoon)  
Mercredi 4 mai 2016 (après-midi)  
Miércoles 4 de mayo de 2016 (tarde)

1 hour 30 minutes / 1 heure 30 minutes / 1 hora 30 minutos

---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Write a guided literary analysis on one passage only. In your answer you must address both of the guiding questions provided.
- The maximum mark for this examination paper is **[20 marks]**.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 Rédigez une analyse littéraire dirigée d'un seul des passages. Les deux questions d'orientation fournies doivent être traitées dans votre réponse.
- Le nombre maximum de points pour cette épreuve d'examen est de **[20 point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criba un análisis literario guiado sobre un solo pasaje. Debe abordar las dos preguntas de orientación en su respuesta.
- La puntuación máxima para esta prueba de examen es **[20 puntos]**.

하나의 제시문을 골라 문학적으로 분석하시오. 분석에는 제시된 질문의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성님들 잘 기셨소?” 했다.

“너거 시어머니 봤나?”

해순이는 고개만 끄덕였다.

5 그의 시어머니는 해순이를 보자 입부터 실룩이고 눈물을 가두었다. 아들 생각을 해선지? 아니면 제삿날을 잊지 않고 온 며느리가 기특해선지? 해순이는 제 방에 들어가서 우선 잠수(潛水) 연모부터 찾아보았다. 시렁 위에 그대로 얹혀 있었다. 해순이는 반가웠다. 맘이 놓였다. 그래서 불가로 나왔다.

“나 인자 안 갈 테야, 성님들하고 여기서 같이 살래!”

10 그리고는 훌쩍 일어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가슴 가득히 숨을 들이켰다. 오래간만에 말는 그렇게도 그립던 갯냄새였다.

아낙네들은 모두 서로 눈만 바라보고 말이 없었다.

상수도 징용으로 끌려가 버린 산골에서는 견딜 수 없는 해순이었다.

오뉴월 콩밭에 들어서면 깎박 숨이 막혔다. 바랭이 풀을 한 골 뜯고 나면 손아귀에 맥이 탁 풀렸다. 그럴 때마다 눈앞에 흰히 바다가 띄어왔다.

15 물웃을 입고 침병 뛰어들면—해순이는 못 견디게 바다가 아쉽고 그리웠다.

—고등어 철—해순이는 그만 호미를 내던지고 산비탈로 올라갔다. 그러나 바다는 안 보였다. 해순이는 더욱 기를 쓰고 미칠 듯이 산꼭대기로 기어올랐다. 그래도 바다는 안 보였다.

이런 일이 있는 뒤로 마을에서는 해순이가 매구 혼이 들렸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20 시가에서 무당을 데려다 굿을 차리는 새, 해순이는 걷은 소매만 내리고 마을을 빠져나와 30리 산길을 단걸음에 달려온 것이다.

“진정이나, 속 시원해 말 좀 해라, 보자—”

숙이 엄마의 좀 다급한 물음에도 해순이는 조용조용,

25 “수수밭에 가면 수숫대가 모두 미역밭 같고, 콩밭에 가면 콩말이 원통 바다만 같고…….”

“그래!”

“바다가 보고파 자꾸 산으로 올라갔지 며, 그래도 바다가 안 보이데—”

“그래 너거 새서방은?”

“징용 간 지가 언제라고.”

30 “저런…….”

“시집에선 날 매구 혼이 들렸대.”

“쫓쫓.”

“난 인제 죽어도 안 갈 테야, 성님들하고 여기 같이 살 테야!”

이 때 후리막에서 야단스리 깽과리가 울렸다.

35 “아, 후리다!”

“후리다!”

“안 가?”

“왜 안 가!”

숙이 엄마가 해순이 보고,

40 “앞치마만 두르고 빨리 나오라니…….”

해순이는 재빨리 옷을 갈아 입고 나왔다. 아낙네들은 해순이를 앞세우고  
후리막으로 달려갔다. 맨발에 식은 모래가 해순이는 오장육부에 간지럽도록 시원했다.  
달음산 마루에 초아흐렛달이 걸렸다. 달 그림자를 따라 멀치 떼가 들었다.  
- 데에야 데야  
45 드물게 보는 멀치 떼였다.

오영수 “갯마을” <칼날과 사랑> (1953)

- (ㄱ) 해순이의 삶에서 바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 (ㄴ) 서정적 분위기를 담아내는 등 문체적 특징들과 본문에서 보여지는 대조적 양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떠나가는 배

나 두 야 간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거나  
나 두 야 가련다

5 아늑한 이 항군들 손쉽게야 버릴거나  
안개같이 물어린 눈에도 비치나니  
골짜기마다 밭에 익은 뿔부리 모양  
주름살도 눈에 익은 아, 사랑하던 사람들

10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잊는 마음  
쫓겨가는 마음인들 무어 다를거나  
돌아다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헤살짓는다  
앞 대일 어덕\*인들 마련이나 있을거나

나 두 야 가련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15 눈물로야 보낼거나  
나 두 야 간다

박용철 <시문학> (1930)

---

\* 앞 대일 어덕: 배를 댈 항구로서 정해진 목적지

(ㄱ) 이 시에서 보여지는 화자의 슬픔의 고조에 대한 분위기와 이것이 가지는 효과를 설명하시오.

(ㄴ) 1연과 4연의 반복 등 이 시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것이 작품의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설명하시오.

---